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3. Vol. 8, No. 2, 399 - 414

#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 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민규‡ 김교헌 김정남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경남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경남거주자 449명, 대전거주자 474명 총 923명이었다. DSM-IV와 GA의 진단 기준을 사용하여 유병률 측정하였으며,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자긍심, 주도적인 인생태도, 최근 3년동안의 도박활동경험, 도박에 대한 태도, 도박습관, 도박의도, 접근용이성, 도박동기(사교동기, 돈추구동기, 긴장해소동기, 유희동기), 우울정서, 흡연정도와 알코올 사용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유병률에서 두 지역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DSM-IV기준 평생유병률, 경남 -3.34%, 대전-2.53%). 도박중독자는 도박 무경험자나 비중독 도박자에 비해서 도박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도박습관, 도박의도 수준이 높았다. 또한 도박의 접근용이성이 높고, 도박을 사교, 돈추구, 긴장해소, 유희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도박중독자가 우울정도가 높았으며 흡연과 알코올 사용정도도 높았다. 그러나 이들의 자긍심과 주도적 인생태도는 낮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이 도박중독의 예방/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주요어: 도박중독, 평생유병률, 도박동기, 도박태도, 도박의도, 도박습관

우리는 다양한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는다. 하지만 그 활동이 과도해졌을 때 삶의 손상을 가져오는 활동들도 많다. 이런 활동에는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주의를 받아왔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2-H00008).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민규 (660-702) 경남 진주시 가좌동900 경상대학교 심리학과E-mail : rmk92@chol.com

던 약물(혹은 물질) 사용뿐만 아니라 섭식, 운동, 성행위, 쇼핑, 인터넷사용, 도박 등이 있다(김교헌, 2002). 이 활동들 가운데 도박은 합법화되고 허용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고, 도박중독 인구(병적 도박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단순한 즐거움이나 흥미를 얻기 위한 활동을 넘어선 병적 도박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Bolen & Boyd, 1968; Custer, 1982; Haustein & Schurgers, 1992; Bellaire & Caspari, 1992). 구체적으로 말해서 병적 도박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이혼, 가정폭력(Lorenz & Yaffee, 1988), 자살, 자녀의 행동문제(Lesieur & Klein, 1987; Jacobs, 1989), 실직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들도 동반하게 된다. 예컨대 Leiser와 Rosenthal(1991)의 조사에 따르면, 병적 도박자 가운데 12.9%가 알코올남용자였고, 76%가 주요 우울장애를 보였으며, 28%가 반복적인 우울 삽화를 경험하고 자살시도도 증가하였다.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는 1980년 DSM-III에 처음으로 병적 도박(pathologic gambling)을 충동조절장애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였다. DSM-IV(1994)에 의하면 합법화된 도박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병적 도박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다. 병적 도박의 평생유병률이 미국 성인의 경우 0.4%-3.4%, 청소년과 대학생의 경우 2.8%-8.0%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1.7%로 추정되고 있으며, 호주는 무려 7.1%에 이르고 있다(최완철, 김병빈, 오동열, 이태경, 2001). 한국의 경우 이시형 등(1999)이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4.1%가 병적 도박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에서의 도박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권방, 슬롯머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데서 쉽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도박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서 도박중독의 문제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병적 도박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작된다(Ibanez, Mercade, Sanroma, & Cordero, 1992). Gupta와 Derevensky(1998)는 12-17세 청소년의 80.2%가 지난 1년동안 도박을 했다고 보고했고, 이들 가운데 35.1%는 적어도 주당 1회 이상 도박을 했다. NORC(1999)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의 문헌 검토에 따르면 16-17세 청소년의 3분의 2가 지난 1년동안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도움을 구하는 나이는 대략 40대이며(Becona, 1993), 도박과 관련된 인지적 편파들, 예컨대 도박자의 잘못된 추론, 통제착각, 미신적 행위 등이 도박자가 이길 확률의 해석, 결과에 대한 주관적 통제력, 실패에 대한 귀인, 계속 도박을 하는데 대한 정당화,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의 추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박행동을 지속시키거나 증가시킨다(Ladouceur & Walker, 1996).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태도, 도박에 대한 태도, 습관, 의도, 동기 및 정서 또한 도박행동에 중요하다.

한국의 도박중독에 대한 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도박중독자들의 사회적 재활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도박중독의 실태와 도박중독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지역간 유병률 비교와 도박중독 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비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첫째 경남지역과 경남지역의 도박중독 실태를 도박중독 유병률 추정치로 알아보고 도박중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도박중독자, 중독은 아니지만 여가활동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비중독 도박자), 그리고 전혀 도박을 경험이 없는 사람(도박무경험자)의 세 개 집단으로 나눈 후, 이 세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문제성 도박이나 병적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과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인을 문제성 도박이나 병적 도박을 설명하는 요인들로 가정하였다.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1)정서—우울, 2)자긍심, 3)주도적 인생 태도, 4)도박에 대한 태도, 규범, 습관, 의도, 접근가능성, 도박을 말리는 주변 압력, 주위사람의 도박정도 5)도박동기—긴장해소, 사교, 유희, 돈추구 6)도박성 게임 관련 경험과 중독성 물질(술, 담배)을 다루었다.. 지역간 차이와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사회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필요한 요소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경남에 속하는 시와 군 가운데 14지역과 대전의 구 가운데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의 자료 가운데 무작위 반응이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경남지역 449명과 대전지역 474명(총92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지역별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인 특징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평균연령을 보면, 경남지역이 29.56세(SD=11.85)이고 대전지역이 34.39세(SD=13.36)으로 대전지역이 경남지역보다 평균연령이 유의하게 높았다, $F(1,921)=33.23$, $p<.001$.

### 측정 도구

질문지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묻는 문항과 도박 유병률을 측정하는 문항 그리고 심리사회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심리사회적 특성을 묻는 질문지 가운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고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들이 새로 구성한 척도는 신뢰도 분석과 구성 개념타당화 전략을 사용하여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유병률 측정**.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편람 기준(DSM-IV NODS, 1994)과 미국 단독박회(1997)에서 만든 척도(GA척도)로 유병률을 측정하였다. DSM-IV NODS는 17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 유병률과 평생 유병률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판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평생유병률 .99, 1

년 유병률 .98로 상당히 신뢰로 왔다. 또한 한국판 DSM-IV NODS의 신뢰도를 내적일관성 계수 Cronbach Alpha로 살펴본 결과 평생유병률이 .94, 1년 유병률이 .93으로 아주 신뢰롭게 나타났다. 이 척도에서 0-2점을 정상, 3-4점을 문제성 도박자(problem gambler)로, 그리고 5점 이상을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er)로 분류하였다. GA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0으로 신뢰로운 측정 도구임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총점이 0-3점 일 때 정상, 4-6점을 문제성 도박 그리고 7점 이상을 도박중독(병적도박)으로 분류하였다.

**자긍심**.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 Alpha는 .83이었다.

**주도적 인생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목표를 가지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등 주도적인 인생태도를 측정하는 Greengrass의 척도를 김교헌(2001)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였다.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6으로 높았다.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 '도박을 통해 스릴을 느낄 수 있다.'. '도박은 세상을 사는 즐거움을 더해 준다.' '도박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의 3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65이었다.

**도박에 대한 부정적 태도**. '도박은 패가 망신의 원인이다.' '도박은 인간관계를 망친다.'의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4이었다.

**도박습관**. 자기도 모르게 도박이 빠지거나 자신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도박행동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4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8로 신뢰로운 측정치였다.

**도박을 하지 말라고 주위에서 말리는 압력**.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박을 말리거나 도박하는 일을 싫어하는 내용을 측정하며 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40이었다.

**접근용이성**. 자신에게 도박을 통해서 돈을 딸 수 있는 기술이나, 도박에 필요한 돈을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쉽게 갈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3이었다.

**도박의도**. 돈을 따기 위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도박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 5점 척도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6으로 만족스러웠다.

**돈추구동기**.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거나 돈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구성개념으로 Likert 5점 척도였다. 3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8로 만족스러웠다.

**사교적 동기**.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로 Likert 5점 척도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8로 만족스러웠다.

**긴장해소동기**. 개인적 문제나 죄책감, 불안, 우울, 무력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내용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문항으로 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

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5이었다.

**유희동기**.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흥분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표 1. 지역별 인구통계학적 특징

| 변 인 | | 지역 경 남 사례수( % ) | 지역 대 전 사례수( % ) | 전 체 사례수 ( % ) |
|---|---|---|---|---|
| 성별 | 남성 | 298 ( 66.37) | 220 ( 46.41) | 518 ( 56.12) |
| | 여성 | 151 ( 33.63) | 252 ( 53.16) | 403 ( 43.66) |
| | 무응답 | | 2 ( .42) | 2 ( .22)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연령대 | 10대 | 83 ( 18.49) | 64 ( 13.50) | 147 ( 15.93) |
| | 20대 | 210 ( 46.77) | 157 ( 33.12) | 367 ( 39.76) |
| | 30대 | 36 ( 8.02) | 36 ( 7.59) | 72 ( 7.80) |
| | 40대 | 68 ( 15.14) | 143 ( 30.17) | 211 ( 22.86) |
| | 50대 | 42 ( 9.35) | 64 ( 13.50) | 106 ( 11.48) |
| | 60대이상 | 10 ( 2.23) | 9 ( 1.90) | 19 ( 2.06) |
| | 무응답 | | 1 ( .21) | 1 ( .11)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결혼여부 | 기혼 | 148 ( 32.96) | 219 ( 46.20) | 367 ( 39.76) |
| | 미혼 | 259 ( 57.68) | 213 ( 44.94) | 472 ( 51.14) |
| | 이혼 | 1 ( .22) | 1 ( .21) | 2 ( .22) |
| | 별거 | 1 ( .22) | 2 ( .42) | 3 ( .33) |
| | 사별 | 5 ( 1.11) | 5 ( 1.05) | 10 ( 1.08) |
| | 무응답 | 35 ( 7.80) | 34 ( 7.17) | 69 ( 7.48)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종교 | 기독교 | 60 ( 13.36) | 127 ( 26.79) | 187 ( 20.26) |
| | 천주교 | 35 ( 7.80) | 43 ( 9.07) | 78 ( 8.45) |
| | 불교 | 130 ( 28.95) | 85 ( 17.93) | 215 ( 23.29) |
| | 무교 | 217 ( 48.33) | 210 ( 44.30) | 427 ( 46.26) |
| | 기타 종교 | 6 ( 1.34) | 9 ( 1.90) | 15 ( 1.63) |
| | 무응답 | 1 ( .22) | | 1 ( .11)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월평균 | 100만원미만 | 18 ( 4.01) | 22 ( 4.64) | 40 ( 4.33) |
| | 100-199만원 | 57 ( 12.69) | 39 ( 8.23) | 96 ( 10.40) |
| | 200-299만원 | 116 ( 25.84) | 120 ( 25.32) | 236 ( 25.57) |
| | 300-399만원 | 123 ( 27.39) | 122 ( 25.74) | 245 ( 26.54) |
| | 400-499만원 | 69 ( 15.37) | 96 ( 20.25) | 165 ( 17.88) |
| | 500-599만원 | 24 ( 5.35) | 29 ( 6.12) | 53 ( 5.74) |
| | 600-699만원 | 17 ( 3.79) | 18 ( 3.80) | 35 ( 3.79) |
| | 700-999만원 | 7 ( 1.56) | 13 ( 2.74) | 20 ( 2.17) |
| | 1000만원이상 | 5 ( 1.11) | 3 ( .63) | 8 ( .87) |
| | 무응답 | 13 ( 2.90) | 12 ( 2.53) | 25 ( 2.71)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5점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4이었다.

**우울정서**.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가 한국어로 표준화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1로 아주 높았다.

**주위사람들이 도박하는 정도**. 부모, 친구, 형제, 친구 등 주위사람들이 도박성 게임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7이었다.

### 분석방법 및 통계패키지

먼저 각 지역별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빈도로 산출된 값은 $\chi^2$으로 분석하고, 도박중독 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비교는 변량분석(ANOVA)으로 하였다. 새로 구성한 척도의 신뢰도는 일관성 계수 Cronbach α로 살펴보았다. 이 모든 분석은 SPSS 1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결 과

### 최근 3년 동안 경험한 도박활동의 정도(월평균회수)

최근 3년 동안의 13개 도박성 게임 또는 활동의 월평균 회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지역간 비교를 했을 때, 6가지 도박행동에서 두 지역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화투나 트럼프, $\chi^2(3)=14.71$, $p<.01$, 스포츠 경기에 돈 걸기, $\chi^2(3)=16.33$, $p<.001$, 성인오락실이나 카지노에 가기, $\chi^2(3)=11.96$, $p<.01$, 기계를 이용한 도박활동, $\chi^2(3)=13.12$, $p<.01$, 돈내기스포츠게임 활동, $\chi^2(3)=16.25$, $p<.001$, 컴퓨터를 이용한 도박게임, $\chi^2(3)=12.01$, $p<.01$, 동전치기나 뽑기 게임, $\chi^2(3)=16.36$, $p<.001$, 주식이나 채권, $\chi^2(3)=10.23$, $p<.05$, 도박 활동이 지역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식이나 채권시장 참여 활동은 대전지역이 경남보다 높았고, 나머지 유의한 활동 5개는 경남지역이 대전지역보다 월평균회수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도박활동은 복권(경험없음:50.4%)과 화투/트럼프(경험없음:49.0%)였다.

### 문제성 도박과 병적 도박의 유병률

DSM-IV 기준과 GA 기준으로 경남지역과 대전지역의 문제성 도박 및 병적 도박의 평행유병률과 1년유병률, 그리고 도박중독 유병률을 살펴보았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DSM-IV 기준으로 했을 때 병적 도박의 평생유병률과 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못했다, $\chi^2(2)=.89$, n.s. 그러나 병적 도박으로 분류된 사람이 경남지역 3.34%, 대전지역 2.53%로 경남지역이 대전지역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1년 유병률에서도 두 지역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chi^2(2)=2.42$, n.s. 그리고 GA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간 도박중독률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i^2(2)=2.26$, n.s. 그러나 GA 기준으로 유병률을 추정했을 때보다 DSM-IV 기준을 사용했을 때 유병률이 더 낮았다. 이런 결과는 GA는 선별 질문지(screeing inventory)이고 DSM-IV는 진단적 도구(diagnostic instrument)로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표 2. 최근 3년 동안 경험한 도박 월평균 회수

| 변 인 | | 지역 경남 사례수 ( % ) | 지역 대전 사례수( % ) | 전체 사례수 ( % ) |
|---|---|---|---|---|
| 화투/트럼프 | 경험없음 | 195 ( 43.43) | 257 ( 54.22) | 452 ( 48.97) |
| | 1회미만 | 188 ( 41.87) | 155 ( 32.70) | 343 ( 37.16) |
| | 1-3회정도 | 35 ( 7.80) | 43 ( 9.07) | 78 ( 8.45) |
| | 3회이상 | 31 ( 6.90) | 19 ( 4.01) | 50 ( 5.42)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동물시합 | 경험없음 | 347 ( 77.28) | 397 ( 83.76) | 744 ( 80.61) |
| | 1회미만 | 97 ( 21.60) | 74 ( 15.61) | 171 ( 18.53) |
| | 1-3회정도 | 4 ( .89) | 2 ( .42) | 6 ( .65) |
| | 3회이상 | 1 ( .22) | 1 ( .21) | 2 ( .22)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스포츠경기 | 경험없음 | 326 ( 72.61) | 392 ( 82.70) | 718 ( 77.79) |
| | 1회미만 | 99 ( 22.05) | 73 ( 15.40) | 172 ( 18.63) |
| | 1-3회정도 | 18 ( 4.01) | 6 ( 1.27) | 24 ( 2.60) |
| | 3회이상 | 6 ( 1.34) | 3 ( .63) | 9 ( .98)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주사위 | 경험없음 | 353 ( 78.62) | 400 ( 84.39) | 753 ( 81.58) |
| | 1회미만 | 90 ( 20.04) | 71 ( 14.98) | 161 ( 17.44) |
| | 1-3회정도 | 5 ( 1.11) | 2 ( .42) | 7 ( .76) |
| | 3회이상 | 1 ( .22) | 1 ( .21) | 2 ( .22)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카지노 | 경험없음 | 344 ( 76.61) | 393 ( 82.91) | 737 ( 79.85) |
| | 1회미만 | 92 ( 20.49) | 72 ( 15.19) | 164 ( 17.77) |
| | 1-3회정도 | 10 ( 2.23) | 2 ( .42) | 12 ( 1.30) |
| | 3회이상 | 3 ( .67) | 7 ( 1.48) | 10 ( 1.08)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복권 | 경험없음 | 222 ( 49.44) | 243 ( 51.27) | 465 ( 50.38) |
| | 1회미만 | 164 ( 36.53) | 162 ( 34.18) | 326 ( 35.32) |
| | 1-3회정도 | 43 ( 9.58) | 50 ( 10.55) | 93 ( 10.08) |
| | 3회이상 | 20 ( 4.45) | 19 ( 4.01) | 39 ( 4.23)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빙고 | 경험없음 | 342 ( 76.17) | 384 ( 81.01) | 726 ( 78.66) |
| | 1회미만 | 95 ( 21.16) | 79 ( 16.67) | 174 ( 18.85) |
| | 1-3회정도 | 6 ( 1.34) | 6 ( 1.27) | 12 ( 1.30) |
| | 3회이상 | 6 ( 1.34) | 5 ( 1.05) | 11 ( 1.19)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주식/채권 | 경험없음 | 340 ( 75.72) | 365 ( 77.00) | 705 ( 76.38) |
| | 1회미만 | 100 ( 22.27) | 83 ( 17.51) | 183 ( 19.83) |
| | 1-3회정도 | 4 ( .89) | 14 ( 2.95) | 18 ( 1.95) |
| | 3회이상 | 5 ( 1.11) | 12 ( 2.53) | 17 ( 1.84)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기계도박 | 경험없음 | 346 ( 77.06) | 392 ( 82.70) | 738 ( 79.96) |
| | 1회미만 | 81 ( 18.04) | 76 ( 16.03) | 157 ( 17.01) |
| | 1-3회정도 | 15 ( 3.34) | 2 ( .42) | 17 ( 1.84) |

| | | | | |
|---|---|---|---|---|
| | 3회이상 | 7 ( 1.56) | 4 ( .84) | 11 ( 1.19)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내기놀이 | 경험없음 | 292 ( 65.03) | 350 ( 73.84) | 642 ( 69.56) |
| | 1회미만 | 97 ( 21.60) | 96 ( 20.25) | 193 ( 20.91) |
| | 1-3회정도 | 33 ( 7.35) | 16 ( 3.38) | 49 ( 5.31) |
| | 3회이상 | 27 ( 6.01) | 12 ( 2.53) | 39 ( 4.23)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단타성 주식 | 경험없음 | 347 ( 77.28) | 394 ( 83.12) | 741 ( 80.28) |
| | 1회미만 | 90 ( 20.04) | 66 ( 13.92) | 156 ( 16.90) |
| | 1-3회정도 | 5 ( 1.11) | 9 ( 1.90) | 14 ( 1.52) |
| | 3회이상 | 7 ( 1.56) | 5 ( 1.05) | 12 ( 1.30)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컴퓨터도박 | 경험없음 | 247 ( 55.01) | 302 ( 63.71) | 549 ( 59.48) |
| | 1회미만 | 72 ( 16.04) | 74 ( 15.61) | 146 ( 15.82) |
| | 1-3회정도 | 46 ( 10.24) | 33 ( 6.96) | 79 ( 8.56) |
| | 3회이상 | 84 ( 18.71) | 65 ( 13.71) | 149 ( 16.15)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동전치기 | 경험없음 | 325 ( 72.38) | 383 ( 80.80) | 708 ( 76.71) |
| | 1회미만 | 100 ( 22.27) | 78 ( 16.46) | 178 ( 19.28) |
| | 1-3회정도 | 14 ( 3.12) | 4 ( .84) | 18 ( 1.95) |
| | 3회이상 | 10 ( 2.23) | 9 ( 1.90) | 19 ( 2.06)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표 3. 지역별 도박중독 유병률

| 분 류 기 준 | | 지역 | | 전 체 |
|---|---|---|---|---|
| | | 경 남 | 대 전 | |
| | | 사례수( % ) | 사례수( % ) | 사례수 ( % ) |
| GA기준 | 0-3(정상) | 376 ( 83.74) | 411 ( 86.71) | 787 ( 85.27) |
| 유병분류 | 4-6(중독위험) | 50 ( 11.14) | 39 ( 8.23) | 89 ( 9.64) |
| | 7이상(도박중독) | 23 ( 5.12) | 24 ( 5.06) | 47 ( 5.09)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DSM-IV기준 | 0-2(정상) | 416 ( 92.65) | 439 ( 92.62) | 855 (92.63) |
| 평생유병 | 3-4(문제성도박) | 18 ( 4.01) | 23 ( 4.85) | 41 ( 4.44) |
| 분류 | 5이상(병적도박) | 15 ( 3.34) | 12 ( 2.53) | 27 ( 2.93)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DSM-IV기준 | 0-2(정상) | 427 ( 95.10) | 460 ( 97.05) | 887 ( 96.10) |
| 일년유병 | 3-4(문제성도박) | 13 ( 2.90) | 9 ( 1.90) | 22 ( 2.38) |
| 분류 | 5이상(병적도박) | 9 ( 2.00) | 5 ( 1.05) | 14 ( 1.52) |
| 소계 | | 449 (100.00) | 474 (100.00) | 923 (100.00) |

### 도박 무경험자, 비중독 도박자 그리고 도박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도박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3년간 13가지 도박 활동 가운데 어떤 활동도 없었던 사람을 '도박 무경험자'로 하고, 도박활동이 있으면서 GA척도 기준으로 3점 이하를 '비중독 도박자' 그리고 GA척도에서 4점 이상을 '도박중독자'로 분류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적인 차이도 알아보기 위하여 도박중독정도에 따른 집단(도박무경험자, 비중독도박자, 도박중독자:3수준)과 지역(경남, 대전:2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에 각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도박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에서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최근3년간의 월평균 도박활동경험, 주위사람의 도박정도, 도박의 동기들(사교동기, 긴장해소동기, 돈추구동기, 유희동기),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 도박을 말리는 주변압력, 도박의 접근용이성, 도박습관, 도박의도, 우울 변인에서 도박중독자가 도박 무경험자나 비중독 도박자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긍심이나 주도적 인생태도는 도박중독자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주효과는 최근 3년동안의 도박활동 경험, 도박의 사교적 동기, 긴장해소동기, 도박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전지역사람에 비해서 최근 3년 동안의 도박활동경험 횟수가 많았으나 대전지역사람이 경남지역사람에 비해서 사교목적이나 긴장해소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그리고 경남지역 사람들이 대전지역 사람에 비해서 도박이 더 나쁘다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표 4. 도박중독 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 | | 집단 | | | | | | | | | | | |
|---|---|---|---|---|---|---|---|---|---|---|---|---|---|
| | | 도박무경험자 | | | 비중독도박자 | | | 도박중독자 | | | 전체 | | |
| 심리사회적특성 | 지역 | 평균 | (SD) | N | 평균 | (SD) | N | 평균 | (SD) | N | 평균 | (SD) | N |
| 최근3년간 월평균도박경험 | 경남 | .00 | (.00) | 103 | 6.53 | (6.32) | 273 | 9.34 | (7.03) | 73 | 5.49 | (6.50) | 449 |
| | 대전 | .00 | (.00) | 120 | 5.24 | (5.19) | 291 | 8.08 | (7.27) | 63 | 4.29 | (5.53) | 474 |
| | 소계 | .00 | (.00) | 223 | 5.87 | (5.80) | 564 | 8.76 | (7.15) | 136 | 4.87 | (6.05) | 923 |
| 주위사람의 도박정도 | 경남 | 2.53 | (2.87) | 103 | 4.63 | (3.10) | 273 | 6.35 | (4.15) | 73 | 4.46 | (3.46) | 449 |
| | 대전 | 2.74 | (2.36) | 120 | 4.74 | (3.12) | 291 | 7.18 | (3.51) | 63 | 4.63 | (3.29) | 474 |
| | 소계 | 2.63 | (2.62) | 223 | 4.69 | (3.11) | 564 | 6.73 | (3.88) | 136 | 4.55 | (3.37) | 923 |
| 사교동기 | 경남 | 2.02 | (2.93) | 103 | 5.00 | (2.92) | 273 | 5.45 | (2.62) | 73 | 4.64 | (3.07) | 449 |
| | 대전 | 3.05 | (3.66) | 120 | 5.31 | (2.94) | 291 | 6.12 | (2.44) | 63 | 5.18 | (3.06) | 474 |
| | 소계 | 2.46 | (3.29) | 223 | 5.16 | (2.93) | 564 | 5.75 | (2.55) | 136 | 4.90 | (3.08) | 923 |
| 긴장해소동기 | 경남 | .70 | (1.61) | 103 | 1.98 | (2.17) | 273 | 2.84 | (2.59) | 73 | 1.96 | (2.27) | 449 |
| | 대전 | 1.09 | (2.64) | 120 | 2.02 | (2.27) | 291 | 3.96 | (2.53) | 63 | 2.29 | (2.50) | 474 |
| | 소계 | .85 | (2.07) | 223 | 2.00 | (2.22) | 564 | 3.35 | (2.61) | 136 | 2.12 | (2.39) | 923 |

| 심리사회적특성 | 지역 | 집단 | | | | | | 전체 | | |
|---|---|---|---|---|---|---|---|---|---|---|
| | | 도박무경험자 | | | 비중독도박자 | | | 도박중독자 | | |
| | | 평균 | (SD) | N | 평균 | (SD) | N | 평균 | (SD) | N |
| 돈추구동기 | | .44 | (1.21) | 103 | 2.29 | (2.53) | 273 | 4.91 | (3.15) | 73 | 2.55 | (2.86) | 449 |
| | 경남 | .85 | (1.84) | 120 | 2.15 | (2.20) | 291 | 4.47 | (3.11) | 63 | 2.44 | (2.57) | 474 |
| | 대전 | .60 | (1.50) | 223 | 2.22 | (2.37) | 564 | 4.71 | (3.12) | 136 | 2.49 | (2.72) | 923 |
| | 소계 | | | | | | | | | | | | |
| 유희동기 | | 1.52 | (2.33) | 103 | 3.98 | (2.83) | 273 | 5.04 | (3.00) | 73 | 3.82 | (2.98) | 449 |
| | 경남 | 1.62 | (2.31) | 120 | 4.13 | (2.69) | 291 | 5.84 | (2.73) | 63 | 4.17 | (2.87) | 474 |
| | 대전 | 1.56 | (2.31) | 223 | 4.05 | (2.76) | 564 | 5.41 | (2.89) | 136 | 3.99 | (2.93) | 923 |
| | 소계 | | | | | | | | | | | | |
| 도박에 대한 | | 3.39 | (2.33) | 103 | 4.18 | (2.32) | 273 | 5.93 | (2.43) | 73 | 4.29 | (2.46) | 449 |
| 긍정적 태도 | 경남 | 3.40 | (2.45) | 120 | 4.25 | (2.20) | 291 | 5.35 | (2.05) | 63 | 4.19 | (2.32) | 474 |
| | 대전 | 3.40 | (2.39) | 223 | 4.21 | (2.26) | 564 | 5.66 | (2.27) | 136 | 4.23 | (2.39) | 923 |
| | 소계 | | | | | | | | | | | | |
| 도박에 대한 | | 4.85 | (2.50) | 103 | 4.60 | (2.05) | 273 | 4.76 | (1.82) | 73 | 4.68 | (2.12) | 449 |
| 부정적 태도 | 경남 | 4.19 | (2.65) | 120 | 4.62 | (1.89) | 291 | 4.35 | (1.59) | 63 | 4.47 | (2.07) | 474 |
| | 대전 | 4.49 | (2.60) | 223 | 4.61 | (1.97) | 564 | 4.57 | (1.72) | 136 | 4.57 | (2.10) | 923 |
| | 소계 | | | | | | | | | | | | |
| 도박을 말리는 | | 10.40 | (3.79) | 103 | 9.36 | (3.11) | 273 | 8.55 | (2.64) | 73 | 9.46 | (3.25) | 449 |
| 주변압력 | 경남 | 9.77 | (3.66) | 120 | 8.84 | (3.45) | 291 | 8.84 | (2.87) | 63 | 9.07 | (3.45) | 474 |
| | 대전 | 10.06 | (3.72) | 223 | 9.09 | (3.29) | 564 | 8.69 | (2.75) | 136 | 9.26 | (3.36) | 923 |
| | 소계 | | | | | | | | | | | | |
| 도박의 | | 1.24 | (2.41) | 103 | 2.83 | (3.09) | 273 | 5.69 | (3.94) | 73 | 2.95 | (3.40) | 449 |
| 접근용이성 | 경남 | 1.61 | (2.44) | 120 | 2.60 | (2.71) | 291 | 5.27 | (3.35) | 63 | 2.72 | (2.95) | 474 |
| | 대전 | 1.44 | (2.43) | 223 | 2.71 | (2.90) | 564 | 5.50 | (3.67) | 136 | 2.83 | (3.17) | 923 |
| | 소계 | | | | | | | | | | | | |
| 도박습관 | | .51 | (1.88) | 103 | 1.84 | (2.67) | 273 | 4.75 | (3.54) | 73 | 2.03 | (2.99) | 449 |
| | 경남 | .68 | (2.16) | 120 | 1.43 | (2.03) | 291 | 4.44 | (3.24) | 63 | 1.66 | (2.53) | 474 |
| | 대전 | .60 | (2.03) | 223 | 1.63 | (2.37) | 564 | 4.61 | (3.39) | 136 | 1.84 | (2.77) | 923 |
| | 소계 | | | | | | | | | | | | |
| 도박의도 | | .28 | (1.37) | 103 | .86 | (1.78) | 273 | 2.56 | (2.71) | 73 | 1.01 | (2.02) | 449 |
| | 경남 | .37 | (1.42) | 120 | .69 | (1.36) | 291 | 2.03 | (2.14) | 63 | .79 | (1.59) | 474 |
| | 대전 | .33 | (1.39) | 223 | .77 | (1.58) | 564 | 2.31 | (2.47) | 136 | .90 | (1.81) | 923 |
| | 소계 | | | | | | | | | | | | |
| 자긍심 | | 25.81 | (5.95) | 103 | 26.15 | (6.38) | 273 | 24.05 | (5.98) | 73 | 25.73 | (6.25) | 449 |
| | 경남 | 28.03 | (6.06) | 120 | 26.04 | (4.84) | 291 | 24.08 | (4.95) | 63 | 26.28 | (5.32) | 474 |
| | 대전 | 27.00 | (6.10) | 223 | 26.09 | (5.63) | 564 | 24.07 | (5.51) | 136 | 26.01 | (5.80) | 923 |
| | 소계 | | | | | | | | | | | | |
| 주도적 | | 22.34 | (5.32) | 103 | 21.83 | (5.11) | 273 | 20.25 | (5.52) | 73 | 21.69 | (5.26) | 449 |
| 인생태도 | 경남 | 23.43 | (5.06) | 120 | 22.09 | (4.36) | 291 | 20.44 | (4.36) | 63 | 22.21 | (4.62) | 474 |
| | 대전 | 22.92 | (5.20) | 223 | 21.96 | (4.74) | 564 | 20.34 | (5.00) | 136 | 21.95 | (4.95) | 923 |
| | 소계 | | | | | | | | | | | | |
| 우울 | | 15.51 | (9.81) | 103 | 15.60 | (9.40) | 273 | 20.41 | (10.24) | 73 | 16.37 | (9.78) | 449 |
| | 경남 | 15.54 | (9.48) | 120 | 15.37 | (8.45) | 291 | 19.56 | (9.49) | 63 | 15.97 | (8.96) | 474 |
| | 대전 | 15.53 | (9.61) | 223 | 15.48 | (8.92) | 564 | 20.01 | (9.87) | 136 | 16.17 | (9.36) | 923 |
| | 소계 | | | | | | | | | | | | |

표5. 도박중독 정도(집단)와 지역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변량분석

| 변 인 | | 오 차 | 주 효 과 | | 상호작용효과 | 사후검증(Scheffe p<.05) |
|---|---|---|---|---|---|---|
| | | | 집 단 | 지 역 | 집단×지역 | 집 단[1)] |
| | df | 917 | 2 | 1 | 2 | |
| 최근3년간 월평균도박경험 | MS | 27.84 | 3917.45 | 119.19 | 34.76 | a<b<c |
| | F | | 140.73*** | 4.28* | 1.25 | |
| 주위사람의 도박정도 | MS | 9.86 | 687.80 | 22.84 | 7.03 | a<b<c |
| | F | | 69.76*** | 2.31 | .71 | |
| 사교동기 | MS | 8.46 | 312.68 | 47.67 | 5.50 | a<b<c |
| | F | | 36.96*** | 5.64* | .65 | |
| 긴장해소동기 | MS | 5.16 | 162.17 | 26.31 | 14.20 | a<b<c |
| | F | | 31.43*** | 5.10* | 2.75 | |
| 돈추구동기 | MS | 5.98 | 452.24 | .33 | 4.36 | a<b<c |
| | F | | 75.59*** | .05 | .73 | |
| 유희동기 | MS | 7.47 | 347.34 | 12.34 | 5.49 | a<b<c |
| | F | | 50.12*** | 1.65 | .74 | |
|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 | MS | 5.25 | 207.93 | 4.56 | 5.84 | a<b<c |
| | F | | 39.61*** | .87 | 1.11 | |
| 도박에 대한 부정적 태도 | MS | 4.40 | .65 | 20.18 | 10.00 | n.s. |
| | F | | .15 | 4.59* | 2.27 | |
| 도박을 말리는 주변압력 | MS | 11.04 | 100.38 | 13.31 | 10.39 | a<b, c |
| | F | | 9.09*** | 1.21 | .94 | |
| 도박의 접근용이성 | MS | 8.57 | 684.45 | 1.48 | 8.66 | a<b<c |
| | F | | 79.85*** | .17 | 1.01 | |
| 도박습관 | MS | 6.14 | 683.17 | 5.29 | 6.43 | a<b<c |
| | F | | 111.21*** | .86 | 1.05 | |
| 도박의도 | MS | 2.90 | 169.41 | 6.41 | 3.82 | a<b<c |
| | F | | 58.45*** | 2.21 | 1.32 | |
| 자긍심 | MS | 32.67 | 348.14 | 83.85 | 111.17 | a, b>c |
| | F | | 10.66*** | 2.57 | 3.40* | |
| 주도적 인생태도 | MS | 23.92 | 270.48 | 43.41 | 14.85 | a>b>c |
| | F | | 11.31*** | 1.82 | .62 | |
| 우울 | MS | 85.51 | 1159.46 | 20.57 | 8.33 | a, b<c |
| | F | | 13.56*** | .24 | .10 | |
| 술 | MS | .75 | 23.51 | 1.45 | .01 | a<b<c |
| | F | | 31.20*** | 1.92 | .02 | |
| 담배 | MS | .44 | 8.25 | .24 | .27 | a<b<c |
| | F | | 18.95*** | .56 | .62 | |

1) a: 도박무경험자 b:비중독 도박자 c:도박중독자

*** p<.001 ** p<.01 * p<.05

한편 도박과 관련된 물질사용에서 볼 때, 도박중독자(술: 주당 3번 이상 11.76%; 담배: 하루 1갑 이상 3.91%)가 비중독 도박자(술: 주당 3번 이상 8.91%; 담배: 하루 1갑 이상 1.63%)나 도박 무경험자(술: 주당 3번 이상 3.86%; 담배: 하루 1갑 이상 .51%)에 비해서 담배와 술을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중독자의 도박시작 시기는 15세 이전이 31.58%, 16-20세 36.84%, 21-25세 21.05% 26-29세 6.77%, 30대 2.26% 40대 1.50%로 나타났다. 남자 가운데 도박중독자의 비율은 20.8%이고 여자는 6.7%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박중독자의 하루 최대 판돈이 백만원이상 천만원 사이가 3.8%, 천만원 이상 2.3%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가 한 게임에서 최대 딴 돈의 액수는 백만원이상 천만원 사이가 3.8%, 천만원 이상 .8%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과 대전지역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와 도박중독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별 차이를 보면 에서 최근 3년 동안 경험한 도박활동의 월평균횟수에서 경남지역의 사람이 대전지역의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도박중독의 유병률에서는 DSM-IV 기준이나 GA 기준에 따른 분류에서 두 지역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SM-IV 분류기준을 사용했을 때, 병적 도박의 평생유병률이 경남지역 3.34%였으며 대전지역은 2.53%였다. 이런 결과는 미국 성인의 평균 유병률과 비슷하며 한국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시형 등(1999)의 조사결과 4.1%보다 다소 낮은 결과다. 본 연구가 경남과 대전의 두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한국 성인의 병적 도박유병률로 보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도박중독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특성에서 두 지역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박중독의 정도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들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도박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중독 수준은 아니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도박중독자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도박을 하고 개인적인 문제나 죄책감, 불안, 무력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흥분과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 중독자는 돈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을 하며, 도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도박중독자는 자기도 모르게 도박에 빠지거나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며 자신에게 도박을 통해서 돈을 딸 수 있은 기술이나 도박에 필요한 돈을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잘못된 신념도 지니고 있었다. 돈을 따기 위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도박을 할 계획이나 의도 수준도 높았다. 주위사람 가운데 도박을 하는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도박의 사교적 동기, 긴장해소동기, 돈 추구동기, 유희동기, 도박에 대한 긍정적 태도, 도박의 접근용이성, 도박습관, 도박의도, 우울 등의 심리적 특성들은 도박 폐해의 심각성을 높이는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도박중독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자긍심이 낮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주도적인 인생태도가 낮았다.

따라서 이 특성들은 도박 폐해의 심각성을 낮추는 보호요인(protecting factor)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병적 도박이 다른 심리적 문제나 중독성 물질 사용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병적 도박자들의 우울 수준이 도박 무경험자나 비중독 도박자보다 높았다. 이런 결과는 병적 도박자 가운데 76%가 주요우울장애를 28%가 반복적인 우울삽화를 보인다는 Leiser와 Rosenthal(1991)의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담배와 알코올의 사용 정도도 다른 집단에 비해서 도박중독자 집단에서 높았다. 병적 도박이 알코올 소비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Ibanez 등 1992; Becona, 1993)과 일치한다.

병적 도박은 인지, 정서, 행동 그리고 생리적 변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 유지된다. 도박 문제의 해결에서 또한 인지, 정서, 행동, 그리고 생리적 변인이 관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런 측면에서 도박중독치료 프로그램이나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에 몇 가지 시사점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첫째, 도박행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근접한 변인은 도박의도, 도박에 대한 태도, 도박행동에 대한 왜곡된 인지 등의 변인일 수 있다. 따라서 도박중독치료/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도박에 대한 태도, 의도, 인지 요인을 바꾸어 주는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긍심, 자기효능감, 주도적인 인생태도를 증진시키는 심리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도박중독자들이 불안, 우울, 무력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는 수단으로 도박을 한다. 따라서 도박중독 프로그램에서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대안적인 방법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도박중독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기술 훈련을 습득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넷째, 도박행동을 감소시켰을 때, 감소된 도박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망이 필요하다. 친구나 배우자 또는 전문상담가 등의 도움은 감소된 도박행동을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박중독자로 분류된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사점을 가지고 도박중독예방/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도박고위험 혹인 병적도박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김교헌(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59-179.

김교헌, 김원식(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BAS/BIS)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6.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최현숙(1999). 현대인의 사회적 부적응.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99(1), 1-32.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최완철, 김경빈, 오동열, 이태경(2001). 한국형 사

우스 오크 병적 도박 검사 표준화에 대한 예비 연구. 중독정신의학, 5(1), 46-5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SM-III: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PA.

Becona, E (1993). The prevalence of pathological gambling in Galicia. *Journal of Gambling Studies, 9,* 353-369.

Bolen, D. W & Boyd, H.W (1968). Gambling and gambl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8,* 617-630.

Custer, R. L (1982). An overview of compulsive gambling. In: P. A. Carone, S. F. Yolles, S. N. Kieffer and L. W. Krinsky (Eds), *Addictive Disorders Update.*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Guta, R., & Derevensky, J.(1998).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A prevalence study and examination of correlates associated with excessive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4,* 319-345.

Haustein, J. & Schurgers, G.(1992). Therapy with male path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logical gamblers: Between self-help group and group therapy-Report of a developmental proces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8,* 131-142.

Ibanez, A. G., Mercade, P. V., Sanroma, N. A. and Cordero, C. P.(1992). Clinical and behavioural evaluation of pathological gambling in Barcelona, Spain. *Journal of Gambling Studies, 8,* 299-310.

Jacobs, D. F (1989). Children of problem gamblers. *Journal of Gambling Behaviour, 5,* 261-268.

Ladoucer, R & Walker, M (1996). A cognitive perspective on gambling. (In P. M. Salkovskis(Ed.), *Trends in cognitive and behavioural therapies* (pp.89-120). New York: Wiley.)

Lesieur, H. R & Klein, R (1987). Pathological gambl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Addictive Behaviour, 12,* 129-135.

Lesieur, H. R & Rosenthal, R. J. (1991). Pathological gambl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7,* 5-39.

Lorenz, V. C. & Yaffee, R. A. (1989). Pathological gamblers and their spouses: problems in interaction. *Journal of gambling behaviour, 5,* 113-126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e(NORC)(1999). *Report to the National Gambling Impact Study Commission,* February.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원고 접수: 2003 7월 18일
수정원고 접수: 2003년 8월 6일
게재 결정: 2003년 8월 13일

KCI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3. Vol. 8, No. 2, 399 - 414

# Prevalence estimates, demographics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pathological gamblers: focusing on comparing two communities in Korea

**Min-Kyu Rhee**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yo-H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imate prevalence and to explor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pathological gamblers in two communities. Participants were 449 in Gyeongnam and 474 in Daejon(total cases:923). DSM-IV and GA diagnostic criterion was used to estimate pathological gamblers. We measure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such as self esteem, initiative life attitude, gambling activities, attitude toward gambling, gambling habit, gambling intent, gambling accessibility (availability), motives to gamble, depression,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There was n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communities in pathological gambling prevalence(DSM-IV lifetime prevalence, Gyeongnam-3.34%, Daijon-2.53%). As compared with non gamblers and non addictive gamblers, addictive gamblers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 gambling and high level of gambling habit and intent. And they gambled to earn money, release tension, make friends and enjoy excitement and had high level of gambling accessibility. They were more depressed and had smoke and drink more heavily. However they were low in self esteem and initiative life attitude. Finally there were suggestions to development of pathological gambling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

*Keywords: pathological gambling, gambling addiction, life prevalence, gambling motives, attitude toward ambling, gambling intent, gambling habit*